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3차 라오스 기생충 실태 조사

임한중 회장 등, 라오스 현지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 등 관계자 9명이 한·라오스 기생충 관리 협력 사업 계획에 따른 제 3차 라오스 현지 기생충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비엔티안, 캄부완, 사라반 등 라오스 내

3개 지방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건협은 총 5,400여명의 현지 주민에 대한 기생충 검사와 투약을 실시했다.

KOICA의 지원 하에 올해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라오스 기생충 관리 협력 사업은 라오스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NGO 사업의 일환으로, 건협은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만여명의 라오스 초등학생을 검사하

는 한편, 10만 명분의 구충 약품을 지원했으며, 라오스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검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라오스 방문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한중 (한국건강관리협회장) / 조승렬 (성균관대 교수) / 민득영 (한양대 교수) / 용태순 (연세대 교수) / 김성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 황인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 / 최상철, 한국현, 서민호 (건협 임상병리팀)

대구 지부, 10월 경로의 달 맞아 무료 검진



▲ 노인 무료 검진 장면

대구지부가 지난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노인 무료 검진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해 사회적 경로 효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구지부는 대구광역시와 각 구청,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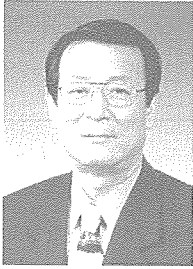
◀ 검진 현장과 경로 잔치에 참석한 관계인사(오른쪽부터 이덕천 시의회 부의장, 변태석 건협 대구지부장, 신현자 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남서중 건협 사무국장, 박정 부장)

월 1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시내 7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마을, 경로당 등의 60세 이상 노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 검사·혈압·소변·혈액·간기능·고지혈·당뇨·심전도·B형 간염·흉부 X선 검사 등의 건강 검진과 상담,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지부는 또 건강 검진과 더불어, 신현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덕천 대구시의회 부의장, 변태석 건협 대구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노인을 위한 경로 위안 잔치를 열어 참석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하성미 사무총장 등 일본 방문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 등 방문, 보건 의료 체계 견학



▲하성미 사무총장



한국건강관리협회 하성미 사무총 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직원 연수 차 일본을 방문했다.

선진 보건 의료 체계를 견학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연수단은 예방의학사업중앙회와 동경도 예방의학협회 등을 견학하고, 예방 의학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일본 내 보건 교육 및 건강 증진 사업 현황을 시찰했다.

임한중 회장,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참가 선수에 성금



임한중 회장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 홀트복지타운을 방문해 제 11회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위



해 강화 훈련을 받고 있는 한국 대표 선수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흡연자 무료 건강 검진

2천년도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사업에 의한 흡연자 무료 건강 검진이 지난 9월부터 10월 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14개 시·도 지부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되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 실시된 흡연자 무료 검진은, 지난 8월 검진 신청을 한

흡연자 중 흡연 기간·흡연량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3천 9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1차 검진으로 진찰·문진·기초검사·흉부X선·심전도·호흡기질환·혈관지질·위장조영촬영·간기능 검사를 비롯하여 체성분·스트레스 측정 등을 받았으며, 건협은 이들 중 폐암 관련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촬영과 객담 세포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협은 이번 검진 사업의 결과를 통하여 흡연과 질병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지부 최봉철 대리, 모범 시민상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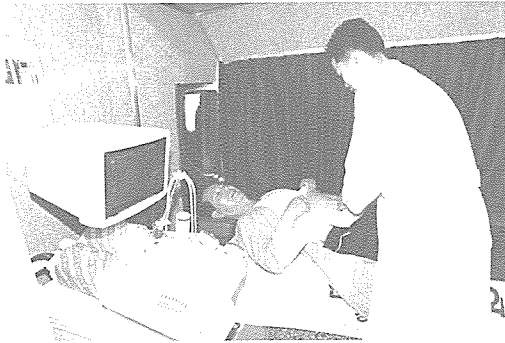


제36회 인천광역시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 지부 최봉철 대리가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인천 시민의 긍지와 애항심을 가지고 맡은바 직분을 다해 인천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 시민의 상을 수상했다.

최봉철 대리는 평소, 책임감과 인천 시민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친절봉사의 정신으로 일해 온 우수 직원이다.

경남 벽오지 주민 등 건강 증진에 활력

특수 암 검진 차량 도입으로, 경남 도민 이동 검진 실시



2천년도 국민 건강 증진 기금과 경남 도비 지원을 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특수 암 검진 차량을 제작하고 지난 10월 13일 경남 도

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벽·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차량의 내부에는 위

장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골밀도 검사기, 자동 흉부 촬영기 등이 탑재되어 있어 도내 어느 곳이든 이동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움직이는 건강증진센터' 라고 할 수 있다.

경남 도민들은 이 차량의 도입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한편 건협 경남지부에서는 11월 중 암 검진 버스를 이용한 시범 사업으로 10개 군 단위 지역을 순회하면서 3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 지부, 경주 엑스포 관람객 무료 검진

경북 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행사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과 상담을 실시했다.



울산 지부, 주부대학생 등 무료 검진

울산 지부는 여성 문화 대학, 현대 주부 대학 학생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전도 외 12종목에 대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종합 검진자 30% 건강 이상

건협 울산광역시지부장 김진욱 박사 1,000명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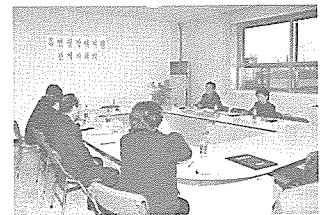
종합 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평균 30%는 경·중증의 만성 질병이나 이상 증상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장 김진욱박사는 지난 10월 8일, "지금까지 종합 검진을 받은 1,000명(남성 550명, 여성 4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검자 10명중 3명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그중 1명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40대 이상은 남성의 경우 위장-간장-심장-고혈압-당뇨

병에, 여성은 자궁질환-유방암-골다공증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40대 이상은 이상 증상의 평균치를 20% 가까이 웃돌고 있어 정기적인 진단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몸에 일시적인 무리를 가하는 운동보다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기사: 서울경제 10월 9일자)

건협, 흡연실 장비 지원 사업 관계자 자문 회의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0월 31일, 2천년도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흡연실 장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 1차 관계자 자문회를 개최하고 지원 장비 및 지원 대상 건물 선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